

Thursday, September 23, 2010

다우지수 10,739.31 ▼21.72 | 나스닥 2,334.55 ▼14.80 | S&P 500 1,134.28 ▼5.50 | 유가 74.71달러 ▼0.26 | 환율 1,161.30원 ▲0.80 | 코스피 1,832.63 ▲5.28 | 코스닥 483.83 ▲0.58

# 한인타운 22층 럭셔리 콘도 '솔레이어' 구경오세요

## 주말 그랜드오픈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의 22층 대형 주상복합 건물 '솔레이어'가 이번 주말 그랜드오픈 행사를 시작으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

솔레이어를 지난 7월 인수한 'ST 레지덴셜' 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그랜드오픈행사에 맞춰 새로운 모델 유닛과 세일즈 센터를 마련해 22일 프리뷰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솔레이어는 1,000만여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소개하고 대폭 낮아진 분양가를 공개했다. 솔레이어의 유닛 당 분양가는 48만8,000달러에서 180만달러(팬트하우스)까지 책정됐는데 이는 예전의 스퀘어피트 당 평균 760달러에서 485달러로 36% 정도 낮아진 가격이다.

186개 콘도 유닛 중 이미 판매된 22개 유닛을 제외한 164유닛을 이번 그랜드오픈과 함께 분양하는 솔레이어는 유닛마다 5스타 호텔 수준의 부엌가구 등으로 인테리어를 고급화하면서 이전의 분양과는 차별화된 유닛들을 바이어들에게 선보인다.

프리뷰 행사에 참여한 ST 레지덴셜의 웨이드 헨들리 CEO는 "솔레이어가 LA는 물론 남加州 최고의 콘도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ST 레지덴셜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콘도를 구입할 후 유닛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팅 브로커인 '박&어소시에이츠'의 브랜드 박 대표는 "각 유닛마다



22일 열린 그랜드오픈 프리뷰 행사에서 ST 레지덴셜의 웨이드 헨들리 CEO(오른쪽 네번째), '케네디 윌셔'의 스투어트 크레이머 사장(왼쪽 두번째), '박&어소시에이츠'의 브랜드 박 대표(맨 왼쪽) 등 관계자들이 웃고 있다. <이은호 기자>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으며 경비체제, 부대시설 등 중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바이어들에게 솔레이어를 소개하게 됐다"며 "지정 용지사인 웰스파코 은행을 이용할 경우 클로징 경비로 1만달러 리베

이트를 제공하는 등 한인 바이어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랜드오픈 행사는 이번 주말(25~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213)387-9099 <백두현 기자>

# 치솟기만 하는...

## 금값 1,300달러 육박, 또 최고치

연방준비제도가사회(FRB)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여파로 금값이 22일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12월 물 가격은 온스당 17.80달러(1.4%) 상승한 1,291.20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은 장중 한때 1,298달러까지 상승하며 1,300달러선에 비깝 다가섰다.

코메트츠뱅크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날마다 신고가 경신"이 최근 금 시장의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한다"고 말했다.

FRB가 전날 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를 담은 발표문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를 언급하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표명하자, 안전자산인 금 매수세가 강화됐다.

특히 FRB가 전날 경제회복을 돕는데 필요하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영향으로 달러화가 급락한 점도 금값 상승을 부추겼다. 금값이나 상품가격은 미국 달러화와 '역상관계'를 갖고 있다.

또 FRB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와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금값 매수세를 강화시켰다.

## 할러데이 항공료 10% 인상

댕스기빙을 전후로 한 할러데이 항공료가 전년 대비 10%가량 인상됐다.

여행 전문 웹사이트 트래블로시티(travelocity.com)에 따르면 국내선의 경우 댕스기빙을 전후로 한 11월 왕복 항공료는 평균 384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만약 댕스기빙 주간 화요일에 출발해 일요일에 돌아오는 티켓을 예약하려면 이보다 170달러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항공사는 댕스기빙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에 여행하는 탑승객에게는 30달러의 할러데이 할증료를 물게 할 예정이어서 댕스기빙을 전후로 한 항공권 가격은 평균치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트래블로시티 측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할러데이 항공 승객들이

2%가량 증가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더 인상됐다"며 "불경기 여파로 그동안 자제했던 항공 여행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다시 여행객 수요가 정상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댕스기빙을 전후로 한 항공여행 계획을 조금만 조정하면 평균 가격보다 훨씬 싼 티켓을 구할 수도 있다.

트래블로시티에 따르면 댕스기빙 당일에 출발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는 스케줄의 경우 평균 왕복 항공권 가격은 293달러로 평균가격보다 100달러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유 항공권이 직항 항공권보다 25~50% 저렴해 이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주현 기자>

**헨리 배** 당신결의 유니맨  
323.634.7777  
주택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비즈니스보험 / 자동차보험  
Henry Bae www.uni-ins.com 유니보험

**퍼시픽 BMW**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딜러  
전화 : (818)246-5600  
직통 : (213)507-7011  
▶ 한인담당 : Simon Lee  
800 S. BRAND BLVD. GLENDALE, CA 91204

확 바뀐 옵티마  
2011년형 시승기 5면

**Hanmi Bank** Life Gets Better  
www.hanmi.com

튼튼한 은행으로  
고객과 커뮤니티에 힘이 되겠습니다!

**한미은행 증자 성공!**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FDIC